

# 87년을 보내면서 부화업계를 돌아본다



## 비수기 생산조절 잘해야

**김호섭** : 부화라고 하면 채란계부화와 육계부화로 구분됩니다. 현재 채란계 취급 부화장은 몇곳 안되기 때문에 부화경기라고 하면 육계가 대부분이므로 오늘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육계부화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부화경기를 외부에서는 비교적 좋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다는 식으로 평년수준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아해보면 5월, 6월, 7월 3개월동안 병아리가격이 좋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1월과 2월의 만 2개월동안 병아리가격이 생산비를 크게 밀도는 가격으로 약 120~160원선에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이때 판매저조 및 가격이 매우 저조했으므로 각 부화장들이 결손을 많이 봤다고 봅니다. 그리고 8월부터

- 일 시 : 1987년 11월 18일 (금) 오후 2시
- 장 소 : 본회 회의실
- 참석자 : 김 춘 수 ((주)한일농원 상무)  
                  김 호 섭 (천호부화장 영업이사)  
                  이 건 일 (봉림부화장 대표)
- 사 회 : 노 영한 (본지 편집국장)
- 정 리 : 조 중수 (본지기자)

**사회** : 올해를 보내면서 부화업계의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에 부화업계가 지향해야 할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88년을 맞는 양계인들에게 새로운 양계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부화업계의 전체적인 개황에 대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까지 3개월동안의 병아리가격도 생산비의 50% 수준 밖에 안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금년도 전체 부화경기는 결코 좋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 불경기에 기록이 깊게 내려가 장기불황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생산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조절을 적기에 잘했던 부화장은 흑자가 많이 나왔을 것이고 반대로 생산조절을 잘못 했거나 무리한 경영을 했던 부화장은 적자상태가 심할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부화경영은 외부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스스로의 생산조절을 통한 계획경영이 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이사장님도 금년도 부화경기를 평년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요와 공급은 생산과 소비와 다르다

**이건일** : 방금 김이사께서 얘기한대로 부화장에 서는 3월에서 7월까지가 흑자였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가 지난해보다 59<sup>00</sup>원 더 높고 사료가격이 인하되어 전년도대

비 약 72원60전 정도가 흑자선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평균단가는 235원 나왔으며, 초생추 평균 단가는 315원이 나오게 되어 소비자단가는 여기에 약 20원 정도 플라스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종계노계도태가 지연되어 약 20%의 생산증가가 되었다고 봅니다. 경기가 좋은 반면 이미 금년도 육계불황은 여기서부터 예고되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는 계육가격하고 사료값 인하에 따른 과잉입추가이때부터 시작된 셈입니다. 그리고 육계업자 입장에서 초생추 측면으로 계산하면 계육가격도 전년도대비 2월에 14원이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55원 이상이 1월부터 7월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11.6%의 사료가격 인하요인까지 포함하면 육계업자들이 약 7개월정도를 전년도대비 kg당 160원까지를 더 받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상반기(1~7월)를 생각해 볼 때 장기간 생산비를 잊도는 육계 값이 유지되었습니다.

세번째 불황요인의 하나가 초생추 과잉입추를 유도한 전 년도의 융통성없는 통계수치들이 지적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난봄 천호·한일의 육용종계세미나에서 나타난 바 1월과 4월의 초생추 최대공급수수는 절대 부족하다고 전망했으며, 육계전망단의 장부회장님 통계도 월간양계 4월호를 보면 5월부터 9월까지 초생추 부족 현상을 예측하고 육계업자들에게 초생추 확보에 대비토록 추진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통계에 있어서 융통성 있는 통계자료를 뽑아야 하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한다면 PS 200만수 분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될 수 있는 수치가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전망을 예측할 때 반드시 어떤 변수를 도입시켜 즉 병아리가격과 닭고기가격이 얼마일 때 초생추의 적정수수는 얼마가 된다는 공식이 마련돼야 합니다.

**사회** : 이사장님께서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가격을 예측했기 때문에 이것이 초감단계에는 맞지만 방금전 이사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병아리가격에 의해서도 공급량은 늘 수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격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음을 감안한 병아리공급량 예측모델을 설정하여 추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월과 2월의 병아리값은 얼마였습니까?

### 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어

**이건일** : 부화장마다 가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편차만 얘기한다면 1월같은 경우는 전년도대비 무려 93원이 낮아 86년도 270원, 금년도 177원으로 93원이 낮았습니다.

2월에는 221원의 평균단가가 나왔으며 87년도에는 207원으로 14원이 낮았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3월부터 7월까지의 평균단가가 무려 72원60전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병아리단가가 156원이 최하위였던 반면, 금년에 무려 93원짜리가 나왔다는 의미는 부화장 측면에서 심각한 악성부채가 생기고 또한 병아리를 부화해 놓고도 분양못하고 물어버린다는가 식란 처분하는 등등을 감안해 볼 때 결국은 부화장에서 소문난 잔치지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사회** : 사료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초생추 생산비가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종계 산란율이 20%인것까지를 무리하게 끌고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수지는 맞는지 들어보겠습니다.

### 산란율 20%의 종계도 도태안해

**이건일** : 수지가 맞습니다. 일단 종계를 키울 때까지의 원가는 무시하고, 매일 먹는 사료값 하고 생산되는 병아리와의 계산이 성립되는바 사실상 종계수당 섭취하는 것이 약 30원이면 됩니다. 즉 관리비와 부화의 일부가 덤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종계산란능력 20%를 가지고 부화를해도 수지맞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 : 많은 PS농장들을 대하시는 김상무님은 금년도 전체적인 부화경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 전반기 초생추 생산 많았어야

**김춘수** : 앞에서 이사장님이나 김이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비해 초생추 단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초생추 단가면에서 봤을때 약간 낮아졌는데 한때는 6, 7, 8월에 가장 높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누가

얼마만큼 더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전체 수지가 맞았느냐 안맞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사회** : 금년도 채란계 입식경향 중 백색계와 갈색계 쪽의 선호도는 어떻게 됩니까?

### 백색선호에서 다시 갈색선호로

**김춘수** : 막연하게 얼마전까지만해도 50 : 50 아니면 백색이 적고 갈색이 약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와 후년도의 산란계 정책을 세우기 위해 지방을 내려가 일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의외로 백색이 적고 갈색이 훨씬 많았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약간은 갈색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보입니다. 지난 85년도에는 갈색으로 다시 86년도에는 백색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보였으며 최근 또다시 갈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산란계 선호도 자주 바뀐다

**김호섭** : 천호에서 나타난 현상은 작년 가을에 백색선호도가 유난히 높았으며 지난 봄에도 백색 판매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가을부터는 다시 반전되서 브라운 쪽으로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그 비율에 있어서 백색이 4 브라운이 6 정도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건일** : 산란계는 간접적으로 산란업자들을 몇번 대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옛날에 사료값이 오를 때는 사료효율이라든가 사료섭취량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사료값이 떨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감각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 백색과 갈색 각기 장단점 있어

**김호섭** : 백색을 사육하는 이유로는 강제환우가 용이하다는 점과 주로 계란납품을 난백 때문에 공급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들 수 있고 그외에는 실제적으로 경제성차원에서 갈색이 높게 평가됩니다.

**사회** : 천호에서 금년도 브로일러 병아리값에 상한선 제도를 실시했는데 이 기회에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호섭** : 상한선 적용을 79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로 8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년에 천호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유난히 병아리값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것 뿐입니다. 병아리값이 일정기간에 아주 높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종계노계의 도태 지연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결코 며칠동안에 아주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생산비를 기준해서 다시 최고가격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사회:** 실제로 시중가격과 상한선 가격에 차이가 크면 사가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특혜를 주는 셈이군요.

### 가격안정이 생산조절의 지름길

**김춘수:** 물론 부화장축에서야 지키겠지요. 그런데 가격을 부화장축에서 결정한다치더라도 가격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사육가)들한테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한 부화장에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구입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초생추값이 일정기간 동안에 최고가격으로 올라가면 생산성이 지연된다고 하지만 부화장축에서 종계산란능력 20%짜리라도 수지타산 자체가 맞으므로 붙들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고객 한분에게 푸대접하는 이쁨이 따릅니다.

대형부화장들은 밑에서 쳐받쳐오는 닭들이 있으므로 일정기간이 되면 종계노계의 산란능력이 70~80%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도태해 버려야 합니다. 결국 생산과잉요인은 부화장축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가격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병아리값이 일단 300원이상 오르면 문제가 생기고 생계값이 900원이상 올라가면 수요가 줄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계약농장에 한해서는 상한선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 이사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 중간상인에 의해 초생추 거래

**이건일:** 김상무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같은 경우 천호에서 상한선을 정하므로써 저희도 따라가는 입장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저희가 고시한 가격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와서 주로 병아리의 판매가 중간 소개업자들에 의해 거래됩니다. 특히 병아리가 귀할 때는 부화장축에서 손해보아가며 다른 부화장 병아리를 알선해 주기도 하는 것을 볼때 상한선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김호섭:** 금년에 천호에서 상한기제도를 실시한 목적의 하나가 업체전체의 육계병아리값이 올라가는 것을 견제해 보고 안정을 기하자는데 있었읍니다. 그러나 워낙 병아리가 부족하므로 인해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읍니다.

**사회:** 소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되는 물량은 전체 병아리 유통량의 몇%나 됩니까?

**이건일:** 중개인과 소개업자가 있는데 자신이 주당 약 만수정도 기른다고 기정할 때 그중 자신이 받는 양에서 고시가격보다 20원을 싸게 받는 소개업자를 포함한 거래량은 전체 병아리 유통량의 약 70%가 됩니다.

**사회:** 그동안 육계종계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질병적인 차원과 사료적인 차원에서 많이 다루어 왔읍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종계 1마리가 약 140여마리의 병아리를 생산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90여마리 정도 밖에 생산 못한다는 얘기를 종계업 하시는 분들한테 종종 듣습니다. 이 문제를 질병적인 문제와 사료적인 문제로 각기 다른 차원에서 보십니까 아니면 양쪽이 겹치는 문제로 보십니까?

### 종계능력 향상되어 간다

**김춘수:** 금년도를 돌아해보면 86년에 비해 생산성(종계경제능력)이 향상된 것은 확실합니다. 작년부터 IB 백신주사를 실시하여 연연중에 IB로 인한 피해가 약간 감소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백신주사한 집은 다같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어떤집은 백신주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상되지 않은 집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요인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질병면으로 본다면 IB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고 꼬집어서 찾기는 어렵고 단지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요인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생산성 저하가 당면문제

**이건일** : 저희같은 경우 83년도부터 질병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기로에 와있습니다. 왜냐하면 ILT가 들어온 83년부터 생산성이 나빠져서 계속 고전하고 있는데 이것의 원인이 처음에는 IB인가 하고 작년도부터 IB백신을 실시하여 역가검사에서 IB항체는 좋게 나왔으나 결과는 생산성이 떨어져 문제가 됩니다. 종계 1마리에서 병아리 90마리 이상을 못뽑고 있는데 아무리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리더라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부화업을 경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화장마다 많이 개선은 되었으나 일부 부화장에서는 거의 체념 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새로운 질병(ILT, IB, 감보로병, EDS 등)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고 난 이후에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만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어느 농장이건 질병의 피해를 은연중에 모두들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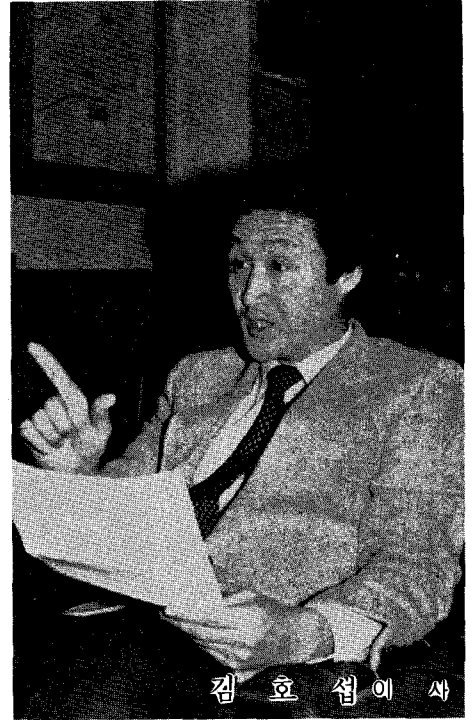
**사회** : 질병측면에서는 개선돼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종계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사료 질병 사양관리 등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섭** : 앞에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ILT가 83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와 초기에는 질병문제 발생으로 산란저하 현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사회** : 천호에서는 직접 도계장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브로일러 시장수요는 몇 kg짜리를 많이 찾습니까?

## 생체 1.6kg 정도가 시장수요에 맞아

**김호섭** : 저희 통계수치만 볼때는 작년도에 생체중 1,650g 정도에서 금년에는 전년도 생체중에서 20~30g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김 호 섭 이 사

**사회** : 이번 육계과동에서 느낀 것은 옛날에는 브로일러와 채란계와는 별개산업으로 닭값이 떨어져도 채란업자들이 걱정을 안하고 계란값에 육계업자들이 걱정 안했었는데 금년에 나타난 현상이 불황의 계곡이 깊어지므로 인해서 채란계노계시장과 브로일러 종계시장을 브로일러가 잠식했습니다. 따라서 종계노계가 인 빠져 병아리 과잉생산이 되었고, 채란계노계를 못빠서 계란이 과잉생산되는 현상으로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칠면조, 기타 가금육이 수입되어 현재 노계시장 즉 막두숙, 햄버거, 패티시장이라든가 육가공원료에 들어간다든가 다른 가공품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잠식한다면 그야말로 걸잡을 수없이 전체적인 불황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좋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산업간 균형발전 필요

**김호섭** : 금년에 특이하게 나타난 육계불황의 원인은 브로일러 산업을 비롯 부화산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없이 외형(규모)만 비대해져서 질름발이 형태로 전개되었



이 전 일 사 장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장단기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순간순간적인 불황인 때는 일시적인 방법인 생산조절을 하는 것이 최선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특히 종계노계처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는 계속되리라 봅니다.

### 생산조절보다 소비늘려야

그러므로 종계노계를 처리하는 방법은 결국 공업용으로 가공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좀더 깊이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육계의 불황과 호황의 주기는 피할 수 없다고 보며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러한 주기를 좀더 길게 그리고 진폭을 좁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생산조절-생산조절하는데 저는 감산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조절에 의한 경기회복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방법은 결국 소비량을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 :** 앞으로 관측사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육계입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전혀 개입을 안하고 시장기능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노계도태를 위한 비축자금 만들어야

**이건일 :** 노계문제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앞으로 부화업자 스스로가 노계를 도태할 수 있는 비축자금을 만드는 것이 숙원사업으로써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고 생각 각합니다.

그야말로 부화업에서 호황과 불황은 막을 수 없는 일차 산업의 숙명입니다. 따라서 이 호황과 불황의 계곡을 얼마만큼 좁고 알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부화장들이 막연하게 종란을 입란해서 불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종계노계를 적기에 도태시키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관여되기에 노계도태 비축자금만은 이번 기회에 금년안으로 협회를 구심점으로 다같이 단합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결정해 놓지 않으면 불황이 다시 오게되어 우리 업계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못됩니다.

**김호섭 :** 부화업자 자체가 스스로 반성해 볼 문제라고 보는 바 노계처리에 대해서 금년 경우를 잊지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화업자들이 업계를 위해서 자기사욕을 버리고 공존공영하는 취지에서 추석후와 구정뒤를 예상해서 노계값 좋을 때 큰 부화장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뽑아주면 다같이 사는 길이 됩니다.

### 병아리값 폭등이 문제의 원인

**김춘수 :** 노계도태도 주기적인 생산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노계문제는 예년의 양상과 조금 다른것이 병아리값이 300원만 유지되었더라도 지금 노계 빠라는 얘기는 없었을 것이고 또한 불황 왔다는 얘기도 없었을 것인데 400원대가 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건일 :** 앞에서 종계산란능력 20%이상 종계노계도태가 지연되었던 것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어 불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사회:** 그러니까 병아리값 400원이 눈물의 씨앗이 된 것으로군요.

**김춘수:** 그럼 400원 안받았으면 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병아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1마리라도 본전으로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지어 작은 부화장에서 3만수를 생산해 냈는데 3만수 가지고는 자기고객을 공급못해 주면 다른 부화장에서 구입해서라도 자신돈 붙여가지고 밀져가면서 공급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달리는 사람에게 앞으로 불황이 올 것을 설명해도 안될때가 문제입니다.

## 금년 불황에 배운것 많다

**김호섭:** 금년도 우리 부화업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의 부화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봅니다.

첫째, 육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계부화생산성을 높여 병아리 생산비를 낮추어야 합니다.

둘째, 고가(高價)의 병아리 가격은 생산과잉을 촉진하여 결국 병아리가격의 폭락을 유발하게 되니 초생추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은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계절적인 비수요기에 대비한 병아리 생산조절과 예측되지 않는 불황이 올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인 생산조절의 자구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부화동업자간 그리고 육계업자와 공존공영하겠다는 의식수준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생계상태로 유통되는 노계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공급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심각한 노계처리 문제가 다시 올 것에 대비하여 종계노계의 처리방법과 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부화업자와 육계업자는 적이 아니고 동지다

**이건일:** 육계업을 하는 분들과 부화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바늘과 실 관계입니다. 닭값이 오르면 같이 기뻐하는 것이 부화업자이고 닭값이 떨어지면 같이 괴로워하고 이퍼하는 것이 또한 부화업자입니다. 그런데 육계업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화장은 그저 병아리 생산하고 싶으면 병아리가격에 관계없이 마구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

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육계업자들이 육계경기가 불경기라고 하면 입추를 안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부화장은 실제 사료값 비중하고 기타 관리비 비중이 무려 4:6으로 계산되어 불황이 오게되면 부화장이 먼저 쓰러지게 왜 있습니다.

육계업자들은 사료값이 7, 기타 비용이 3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불황이 왔을 때 불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부화업자보다 육계업자가 더 강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화업자는 관리비용 등으로 경영상 생산조절을 스스로 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계업자가 초생추대 300원 넘으면 안넣으면 되어 생산조절은 육계업자가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근본적으로 생산조절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질 수 있는 병아리가격 인상요인을 없애기 위해 육계업자 스스로가 입추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강구책으로 봅니다.

육계업이 낙관적인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닭고기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육계업도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오히려 산란계, 양돈, 낙농, 비육우보다 훨씬 유리한 산업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할때 육계업자와 부화업자가 손발을 잘 맞추면 가장 보람있고 수익 올릴 수 있는 사업임을 확신합니다.

**사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년 10~15%씩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외형물량이 많아서 규모만 키우면 사실상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생산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나가다가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정책으로 비꿈으로써 금방 진통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축산에서도 외형만 키우던 체제에서 탈바꿈하므로 내실을 기하지 않으면 상당한 고충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비쁘신데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제**

